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 - 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연구*

Korean and Yanbian Korean - Chinese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 A Study of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s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 교수 옥 경 희**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 수 정 계 속***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천 희 영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부 교수 황 혜 정
연변대학 사범학원
부 교수 최 성 학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Ok, Kyung-Hee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hung, Kai-Sook

Dept. of Child Welfare, Kosin University
Professor : Chun, Hui-You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wang, Hye-Jung

School of Education, Yanbi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i, Cheng-Xu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s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grandfamilies in which grandparents have sol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ir grandchildren. Our sample consists of 74 grandparents and their grandchildren (43 Korean and 31 Yanbian Korean-Chinese).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rosstabs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ased on the gender of grandparents, educational level, the reason for taking care of the grandchildren, and the grandparents' relationship with grandchildren between two ethnic groups. The results also show that parenting stress is higher for Korean grandparents' and parenting efficacy is lower than Yanbian Korean-Chinese. Also, Yanbian Korean-Chinese grandparents are higher in warmth and acceptance and lower in rejected and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s than Korean grandparents. There are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and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for Korean grandparents, but not for Yanbian Korean-Chinese.

▲주요어(Key Words) : 조부모-손자녀가족 (grandfamily), 양육스트레스 (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 (parenting efficacy), 양육행동 (parenting behaviors), 연변조선족 (Yanbian Korean-Chines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C00143).

** 주 저 자 : 옥경희(E-mail : yundoh@gwangju.ac.kr)

*** 교신저자 : 정계속(E-mail : kschung@pusan.ac.kr)

I. 서 론

한국인과 연변조선족은 같은 조상을 가진 동일 민족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다른 국가에서 이질적인 정치제도와 사회문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였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연변조선족에 대해서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변조선족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나 사회정치적 환경이 북한을 간접적으로 이해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연변조선족 연구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2001년 자료에 의하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는 총 인구 약 218만 명 중 38.4%인 84만 명 정도가 조선족인데,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 이후 이들의 가족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보고이다(최성학·김철화, 2004). 특히 부모의 한국취업으로 한 부모 혹은 양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2001년 48.7%, 2002년 51.1%, 2003년 5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리봉월, 2003). 이러한 추세는 2004년 연길시 초·중학교 학생의 40.6%가 부모의 취업출국으로 인한 결손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최성학·김철화, 2004).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신체 혹은 정신질환, 혹은 경제적 활동이나 경제적 무능력과 같은 다양한 이유는 부모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을 높이고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양육을 제공받는 아동의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양육형태 중 부모가 아닌 조부모의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손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조부모-손자녀가족¹⁾의 양육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살고 있는 15세 미만의 아동은 1980년에는 0.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1.2%로 증가하였고, 조부모의 양육을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조부모-손자녀가

족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관련 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으나 대체로 양육실태(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성지혜, 2001; 옥경희, 2005; 최해경, 2002)나 양육부담(권인수, 2000; 김소희, 1997; 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신혜섭, 1999; 옥경희, 2005)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조부모들이 손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된 주된 계기는 자녀의 이혼이었으며, 80% 이상이 친손자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기, 2002; 옥경희, 2005).

연변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조부모-손자녀가족 관련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변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 중 양육을 다룬 연구들은 육아방식(조복희·이재연·윤종희, 1993), 양육행동(박성연·김미경·도현심, 2000), 그리고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임연신·현은강, 2002) 등이 있다. 박성연 등(2000)의 연구에서는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육아방식에 대한 연구(조복희 등, 1993)에서는 태교를 포함한 생애 초기의 육아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부모역할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변조선족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통제적 그리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더 적게 사용하였으며, 부모역할에는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연신·현은강, 2002).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연변조선족들의 양육관련 정보들을 이용하여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의 양육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조부모의 양육을 이해하는데는 한계를 갖는다.

자녀발달에 양육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양육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양육환경이 양육자의 역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부모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정의되는 양육스트레스는(Crnic & Low, 2002)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지수가 소개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다루어지고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가족체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Crnic & Low, 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김미숙·문혁준, 2005; 김현미·도현심, 2004; 박용임, 1995; 박성연·전춘애·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Abidin, 1992; Crnic, Gaze, & Hoffman, 2005; Crnic & Low, 2002; Ge et al., 1994).

부모역할에 대한 적응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다는

1)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칭하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부모-손자녀가족(박창기, 2002; 옥경희, 2005), 손자녀양육 조부모(남명숙, 1999), 조부모손자녀세대(성지혜, 2001), 조손가정(최해경, 2002) 등 연구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grandfamily, skipped generation family, second-generation parenthood, grandparents as parents, grandparents as caregiver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custodial grandparents 등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주장(Deater-Deckard, 1998, Crnic & Low 2002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조부모의 역할이 아닌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부모-손자녀가족에서의 조부모는 부모역할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모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어머니들보다 조모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Oburu, 2005). 나이가 많았을 때, 양육자의 역할수행이 더 힘들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어머니와 조모의 연령을 통제한 후 나타난 두 집단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양육이라는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들은 양육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보고한다(남명숙, 1999; 박창기, 2002; 신혜섭, 1999; 옥경희, 2005; Dowdell, 1995; Junior, Shore, Henderson & Labert, 1998). 직접적인 양육스트레스를 다루지는 않았으나 손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조부모들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Kelly, 1993; Kelley & Damato, 1995),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졌다(Szinovacz, De Viney, & Atkinson, 1999)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조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도 높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양육스트레스와 근접한 개념인 조부모의 양육역할 부담감을 다룬 Pruchno(1999)의 연구에서는 조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역할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부모역할 자신감(parenting competence)의 인지적 측면인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민감한 반응(Donovan, Leavitt & Walsh, 1997; Teti & Gelfand, 1991)이나, 적극적인 부모역할의 참여(김현미·도현심, 2004; Mash & Johnston, 1983; Jackson, 2000; Johnston & Mash, 1989)를 예측하는데 유의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양육효능감은 자녀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는 강압적인 훈육(김미숙·문혁준, 2005; Sanders & Woolley, 2005)이나 허용적 양육방법(Sanders & Woolley, 2005)과 관련이 있다고 선행연구들은 보고한다.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을 다룬 연구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효능감이 높은 조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조부모들보다 손자녀의 삶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손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더 제공하며, 손자녀의 미래계획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밝혀졌다(King & Elder, 1998). 조부모-손자녀가

족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부모의 부모역할에 양육효능감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Ardel과 Eccles(2001)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전략이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조사하였고, 그 결과 양육효능감은 위협하지 않은 환경에 있는 백인어머니의 양육에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으나 위협한 환경에 있는 흑인어머니들의 양육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이었다. 또한 위협에 더 노출가능성이 높은 아들에게 양육효능감이 높은 흑인어머니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양육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이라는 위협이 높은 양육환경에서는 조부모가 지닌 양육효능감에 따라서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정 상관을 보이거나, 부정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한다(김미숙·문혁준, 2005; 김현미·도현심, 2004;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최형성, 2001; Abidin, 1990; Dumka et al., 1996).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자녀의 어머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만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나, 조부모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양육자인 조부모와 피양육자인 손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동질성을 공유하면서도 이질적인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조사하여 두 문화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을 위한 지원이나 부모교육에도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의 특성과 아동발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와 양육행동에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의 특성은 문화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2.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은 문화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3.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양육자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4.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양육자의 양육 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사이의 관계와 두 변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 각 지역에서 무선적으로 표집된 각 2개의 초등학교 1·2학년과 5·6학년에 재학하는 한 부모 또는 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초등학교 아동 340명(남: 172명, 녀: 163명) 연길시 소재 2개 소학교에 재학 중인 같은 학년과 상황의 아동 162(남: 73명, 여: 89명)명 모두 502명의 주양육자 중 부모 없이 이들을 양육하는 조부모 74명과 손자녀 74명(한국: 43명, 연변: 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는 502명의 주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의 양육형태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한 부모 혹은 양 부모와 모두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 중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손자녀가족은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조금 더 높은 19.1%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표 1> 한국과 연변조선족 부모별거 아동의 양육형태 빈도(%)

양육형태	한국	연변
어머니와 함께 산다	128(37.6)	50(30.9)
아버지와 함께 산다	82(24.1)	33(20.4)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산다	44(12.9)	31(19.1)
부모 없이 친척과 함께 산다	8(2.4)	17(10.5)
나이든 형제와 산다	-	1(0.6)
기타	35(10.3)	30(18.5)
무응답	43(12.6)	-
합계	340	162

1) 양육스트레스

부모별거 아동을 양육하는 주 대리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조가원(2002)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20대까지의 자녀를 둔 편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편모의 양육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이 대리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선정되었다.

이 도구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 문제,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중한 역할부담,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사회적 낙인에 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대리양육자가 5점 척도에 반응함으로써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리양육자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발달과 적응문제가 .88, 역할부담이 .84, 경제적 부담이 .91, 사회적 낙인이 .8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지수를 보였다.

2) 양육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바탕으로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 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 등 총 5개 요인의 3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일부 문항을 제외한 2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주 양육대리자가 5점 평정척도에 반응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전반적 양육능력이 .94,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87, 의사소통 능력이 .90, 학습지도 능력이 .95, 훈육능력이 .94로 나타났다.

3)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조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토대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요인 중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등의 온정·수용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9문항과, 아동에 대해 불안,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억압 등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8개 문항, 그리고 온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주는 익애, 굴복형 허용, 무관심 등의 행동을 포함한 5개 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 응답은 4점 척도 중 하나로 답하게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온정·수용이 .89, 거부·제재가 .82, 허용·방임이 .58로 산출되었다.

3. 연구절차와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도구들은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았으나, 연변 지역 대상자들을 위해 연변 지역의 공동연구자로부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 최종 문항의 표현이나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연구자들이 작위적으로 해당 대상을 선정하여 2005년 5월 중순경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005년 6월 1일에서 20일까지에 걸쳐 본조사가 실시되었고, 적어도 한 부모 혹은 양 부모 모두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의 양육자 50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에게는 아동이 지각한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연구자 혹은 연구보조자가 문항을 하나씩 읽어주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함께 들어간 연구보조자가 답을 하였는지 확인한 후, 다음 문제를 읽어주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양육자에게는 양육실태 조사지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척도를 가정으로 보내 답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양육자의 경우에도 조부모가 주양육자로

밝혀진 경우에는 연구보조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 대 일 면접을 통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현재 아동이 '아빠나 엄마 혹은 두 사람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양육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위 아동이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산다'에 응답한 양육자 74명으로부터의 자료와 그들의 손자녀로부터 얻은 자료만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주양육자와 가족 그리고 양육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그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t검증을 실시하여 문화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특성

한국과 연변의 조부모-손자녀가족 특성을 주양육자, 가

<표 2>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의 주양육자, 가족, 양육 대상자의 특성

빈도(%)

주양육자(조부모)		가족		양육대상자(손자녀)					
한국	연변	한국	연변	한국	연변				
성별		양육이유		학년					
조부	6(14.0)	10(32.3)	부모의 사망	6(13.9)	2(6.5)	초등1	8(18.6)	7(22.6)	
조모	37(86.0)	21(67.7)	부모의이혼/별거	27(62.8)	9(29.0)	초등2	18(41.9)	9(29.0)	
교육수준		경제활동별거	6(15.0)	17(54.9)	초등5	7(16.3)	6(19.4)		
		기타	4(9.3)	3(9.7)	초등6	10(23.3)	9(29.0)		
		평균수입		성별					
		100만원 미만	31(72.1)	20(66.7)	손자	23(54.8)	14(45.2)		
무학	14(32.6)	2(6.5)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20.9)	5(16.7)	손녀	19(45.2)	17(54.8)	
초등졸	15(34.9)	6(19.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3)	4(13.3)	관계			
중졸	4(9.3)	14(45.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7)	0(0.0)			친손자	33(86.8)
고졸	10(23.3)	6(19.4)	400만원 이상	0(0.0)	1(3.3)	외손자	5(13.2)	12(46.2)	
전문대졸	0(0.0)	1(3.2)	별거기간(표준편차)		54.3(33.5)	66.2(37.1)			
4년대졸	0(0.0)	2(6.5)	(단위:개월)						
평균연령(편차)		63.40(9.30)	61.80(9.05)						
(단위:세)									

족, 그리고 양육대상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손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의 성별을 살펴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4%인 반면, 연변의 경우에는 조부가 32%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밝혀졌다($\chi^2=3.56, p<.05$). 두 집단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 조부모의 교육수준이 연변조선족 조부모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chi^2=21.02, p<.001$). 한국 조부모들의 반 이상이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연변 조부모들은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들도 한국과 비교하여 더 높았다. 두 문화집단간의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조부모들이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된 이유는 두 문화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14.85, p<.001$). 한국 조부모가족에서의 양육이유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가 6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연변집단에서는 55%가 자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별거가 양육하게 된 이유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전체집단의 3분의 2 이상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가족 평균 수입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손자녀들이 부모와 별거한 기간이 한국보다 연변에서 조금 더 길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조부모들이 양육하는 손자녀의 학년이나 성별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8.62, p<.01$), 한국 조부모들이 양육하는 손자녀의 87%가 친손자라고 응답한 반면 연변 조부모들은 친손자가 54%를 차

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율은 외손자의 46%와 비교하여 10%미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손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손자녀의 발달과 적응문제, 과도한 역할부담으로 인한 조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그리고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 영역에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조부모들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영역은 문화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 조부모들에게는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3.30으로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부모역할에 뒤따르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3.25였다. 부모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79로 그 다음이었고, 자녀의 발달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제일 낮은 2.47이었다. 연변 조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우선순위에 있어 한국 조부모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변 조부모들은 부모역할과 사회적 낙인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점수가 동일한 2.3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손자녀의 발달이나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19이고, 제일 낮은 영역은 경제적 부담으로 2.06이었다. 또한 연변 조부모들의 네 영역에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는 한국 조부모들의 영역별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스트레스가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간의 점수 격차가 더 적었다. 한국 조부모의 경우, 제일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3.30에서 제일 낮은 손자녀의 발달문제가 2.47로 .083의 격차를 보였으나,

<표 3>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과 t검증 결과

문화집단	발달문제	역할부담	경제부담	사회적 낙인
한국	2.47(.99)	3.25(1.08)	3.30(1.36)	2.79(1.18)
연변	2.19(.76)	2.35(.75)	2.06(1.01)	2.35(.89)
t	1.287	3.956**	4.269**	1.729

**p<.001

<표 4>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효능감 평균(표준편차)과 t검증 결과

문화집단	전반양육	건강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육능력
한국	2.77(1.07)	3.09(1.05)	3.37(1.06)	2.27(1.15)	3.48(1.13)
연변	3.83(.88)	4.31(.87)	4.24(.64)	4.07(.94)	4.65(.61)
t	-4.51**	-5.29**	-4.05**	-7.14**	-5.19**

**p<.001

연변 조부모들의 점수 격차는 0.29에 불과하였다.

<표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역별 양육스트레스가 문화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살펴본 결과, 역할부담과 경제적 부담에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조부모들이 연변 조부모들보다 부모역할로 인한 역할부담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경제적 부담에서 집단간 차이가 역할부담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그리고 훈육능력 등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점수를 문화집단에 따라 살펴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갖는 자신감은 한국과 연변 두 집단 모두에서 훈육지도에 가장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조부모들은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 건강하게 기르는 일, 전반적 양육 다음으로 학습지도에 대한 자신감 순으로 나타나 학습지도에 제일 자신감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연변 조부모들은 건강하게 기르는 일, 의사소통, 학습지도 다음으로 전반적 양육능력의 순으로 양육효능감이 낮아졌다.

한국 조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은 제일 높은 훈육지도의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서 3.48인 반면, 연변 조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은 제일 낮은 전반적 양육의 평균점수가 3.83으로 나타나 한국 조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이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영역별 양육효능감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5개영역 모두에서

한국 조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이 모든 영역에서 연변 조부모들의 양육효능감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집단간 차이가 다른 영역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부모역할의 부담감이 효능감을 낮추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연변조선족 조부모들이 한국조부모들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손자녀들에게 더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였으며, 거부제재는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인 아동의 발달과 적응문제, 양육자의 과중한 역할부담,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낙인의 하위영역 모두가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영역의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 양육효능감과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훈육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역할부담, 경제부담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의 관계에서의 상관도 높은 것을 <표 6>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모두는 양육효능감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4.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관계 결과가

<표 5>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행동 평균 (표준편차)과 t검증 결과

문화집단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한국	2.86(.81)	2.15(.72)	2.15(.73)
연변	3.33(.55)	1.80(.66)	2.09(.59)
t	-2.68**	2.11*	0.37

*p<.05, **p<.005

<표 6>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상관관계

	한 국					연 변				
	전반양육	건강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육능력	전반양육	건강양육	의사소통	학습지도	훈육능력
발달문제	-.518**	-.517**	-.479**	-.319*	-.410*	-.196	-.039	-.193	-.075	-.067
역할부담	-.618**	-.411*	-.450**	-.451**	-.639**	.114	-.168	.004	-.145	.036
경제부담	-.495**	-.456**	-.424*	-.444**	-.486**	-.049	.102	.047	.043	.047
사회낙인	-.585**	-.497**	-.460**	-.409*	-.617**	.175	.148	.115	-.230	.062

*p<.05, **p<.01

<표 7>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한 국			연 변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입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입
발달문제	-.548**	.465**	-.120	-.079	.272	-.121
역할부담	-.156	.419**	.305*	-.133	.169	.180
경제부담	-.356*	.125	-.054	-.073	.239	.072
사회낙인	-.402**	.528**	.151	-.028	.333	-.057
전반양육	.337*	-.601**	-.343*	.019	-.065	.201
건강양육	.586**	-.382*	-.013	.092	-.021	.037
의사소통	.400**	-.445**	-.160	.120	-.171	-.067
학습지도	.151	-.446**	-.301*	.215	-.296	-.047
훈육능력	.219	-.351*	-.199	-.120	.004	-.035

* p<.05, **p<.01

<표 8> 한국 조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입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83		5.09**	상수	3.24	12.37**	상수	2.80	9.45**		
건강양육	.61	.78	3.90*	전반양육	-.41	-.59	-.455**	전반양육	-.23	-.34	
발달문제	-.33	-.40	-2.85**								
전반양육	-.39	-.49	-2.43*								
R ²	.51			R ²	.46			R ²	.12		
F	6.12**			F	20.69**			F	5.45*		

* p<.01, **p<.001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조부모의 경우, 조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 사이에는 일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조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는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양육효능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거부적 양육태도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허용적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영역에 따라서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양육효능감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7>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만을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상관은 한국 조부모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표 8>에서는 한국 조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조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을 예측하는데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손자녀의 발달문제에 의한 스트레스 그 다음으로 전반적 양육에 대한 효능감 순이었다. 즉 한국조부모들이 손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높거나, 발달문제에 의한 스트레스가 낮거나, 전반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고 생각할 때,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거부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를 예측하는데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다고 생각할 때, 거부적이거나 허용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한국과 연변에서 손자녀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두 문화집단간의 조부모-손자녀가족의 특성을 살펴본 후,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두 집단의 가족특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이 연변조선족 조부모들보다 조모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낮았으며, 친손자를 더 많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이유에서도 두 집단은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 조부모들이 자녀의 이혼을 양육이유로 지적한 반면, 연변조선족 조부모들은 자녀의 경제적 활동을 손자녀양육을 담당하게 된 주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 조부모들이 부모역할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변조선족 조부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효능감은 전반양육, 손자녀의 건강, 의사소통, 학습지도 및 훈육을 포함한 5개 모든 영역에서 연변조선족 조부모들의 효능감이 한국 조부모들보다 높았다. 양육행동에서는 연변조선족 조부모들이 한국 조부모들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거부·제재행동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집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한국 조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과 모든 영역에서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으나 연변조선족 조부모들에게서는 유의한 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한국 조부모들에게서만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양육효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는 양육스트레스는 정적 상관, 양육효능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다른 양육행동보다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이 정도나 변인 수에 있어서 더 적게 나타났다.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조부모는 양육하는 능력이 높고, 발달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고, 전반적 양육능력이 낮을 때였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조부모는 전반적 양육능력이 낮을 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집단에 따른 조부모-손자녀가족의 특성에서 한국 조부모들이 자녀의 이혼으로 손자녀의 양육의 주된 이유이며, 친손자를 돌보는 비율이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조부모-손자녀가족을 다룬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박창기, 2002; 옥경희, 2005). 두 집단의 조부모-손자녀가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자녀의 주 이혼인 반면 연변조선족에서는 자녀의 경제활동인

결과나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 중 조부모와 살고 있는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표 1>참조), 연변조선족 사회에서의 가족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과의 두드러진 차이는 조부모의 성별에서 연변조선족이 성별의 차이가 더 적었으며, 교육수준은 더 높았고,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친손자와 외손자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연변조선족 사회의 가족문화가 한국보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조부모-손자녀가족을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조부모들의 비율이 3%미만이며(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옥경희, 2005), 구미에서도 6%에 불과하다는(Casper & Bryson, 1998, Glass & Huneycutt 2002에서 재인용)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조부모-손자녀가족을 다룬 연구들의 결과가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변조선족 조부모보다 한국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고, 양육효능감은 더 낮았으며,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수용적 행동은 더 낮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인 거부·제재적 행동은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조부모-손자녀가족이 손자녀양육에는 더 열악한 환경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즉 한국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가족특성에서 살펴본 변인들이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혹은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어머니들보다 조모들이 더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가(Oburu, 2005) 한국이나 연변조선족에서도 지지되는가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집단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동일한 집단 내에서 양육자에 따른 양육 관련 요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남는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다루어질 때, 두 집단의 조부모-손자녀가족의 특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양육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문화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사이에는 부적의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김미숙·문혁준, 2005; 김현미·도현심, 2004;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최형성,

2001; Abidin, 1990; 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지지하고 있으나 연변조선족 조부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도 문화적 집단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두 문화집단의 양육환경이나 양육에 대한 양육자의 태도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서구문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사용되는 양육관련 측정도구가 연변조선족 양육문화를 정확히 측정하는데 한계를 지닌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연변조선족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친 후, 연구가 진행시켰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연변조선족 조부모에게서 기존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연변조선족의 양육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조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유의한 변인이라는 결과는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김미숙·문혁준, 2005; 김현미·도현심, 2004; 박용입, 1995; 박성연·전춘애·한세영, 1996; 신숙재, 1997; Abidin, 1992; Crnic et al., 2005; Crnic & Low, 2002; Ge et al., 1994; Sanders & Woolley, 2005) 일부 지지한다. 그렇지만 양육효능감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은(김미숙·문혁준, 2005; Sanders & Woolley, 2005)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사용한다는 결과가 거부·제재와 허용·방임에서는 지지되고 있으나, 긍정적 양육행동인 온정·수용적 행동에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낮추는 요인이라면 긍정적 양육행동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긍정적 양육행동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후속 연구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살펴본 결과, 조부모-손자녀가족의 형성원인이 한국에서는 이혼 그리고 연변조선족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출국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더불어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적 특성 또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러한 가족적 특성은 두 문화집단의 양육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육관련 변인에서도 두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변조선족보다는 한국에서의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가 양육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연변조선족 양육문화의 융통성이나 드러나지 않은 양육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제를 남긴다.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적 공통점보다는 문화적 이질성이 양육환경이나 양육행동에 더 중요한 환경임을 감안한다면 가족의 구조적 변화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가 양육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이 임의표집으로 이루어졌고, 거주지역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손자녀의 연령도 일부 학년만을 포함시키고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다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때,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4월 17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08일

【참 고 문 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 실태와 정책과제.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권인수(2000).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소희(1997). 모-조모 관계가 손자녀-조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남명숙(1999).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리봉월(2003). 조선족 결혼가정 학생들에 대한 심리건강 교육. 2003. 7. 9. 연변일보.
- 박성연·김미경·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 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159-175.
- 박성연·전춘애·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203-215.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임(1995). 영아-어머니간 애착 유형과 관련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섭(1999).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4, 69-80.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 임연신·현은강(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 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조복희·이재연·윤종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최성학·김철화(2004). 21세기초 조선족 교육의 문제 및 개혁 연구. 연구자료 RM 2004-73,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2002). 통계자료:시도/세대구성/아동보육상태별 아동수. 서울:통계청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1992).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rdelt, M. & Eccles, J. S.(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 Crnicek, K. & Low, C.(2002).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M.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pp. 243-2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nicek, K. A., Gaze, C. & Hoffman, C.(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0.
- Donovan, W. L., Leavitt, L. A. & Walsh, R. O.(1997). Cognitive set and coping strategy affect mothers' sensitivity to infant cries: A signal detection approach. *Child Development*, 68, 760-772.
- Dubowitz, H. & Sawyer, R.(1994). School behavior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11), 899-911.
- Dumka, L. E. Sta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Ge, Z., Conger, R. D., Lorenz, F. O. & Simons, R. L.(1994). Parents' stressful life events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1), 28-44.
- Glass, J. C. & Huneycutt, T. L.(2002). Grandparents parenting grandchildren: Extent of situations, issues involved,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8, 139-161.
- Iglehart, A.(1994). Kinship foster care: Placement services and outcome issu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07-127.
- Jackson, A. P.(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a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3-16.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Jones, R. & Hansen, C.(1996). *Cartelizing behaviors which predict adjustments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Ontario, Canada(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09 986).
- Kellum, S. G. Ensminger, M. E. & Turner, J.(1977). Family structure and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4, 1012-1022.
- Kelly, S. J.(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

- 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Kelly, S. J. & Damato, E. G.(1995). Grandparents as primary caregivers. *Maternal Child Nursing*, 20, 12-20.
- King, V., Elder, Jr. G. H.(1998). Perceived self-efficacy and grandparent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3B, s249- s257.
-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Oburu, P. O.(2005). Caregiving stress and adjustment problems of Kenyan orphans raised by grandmothe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99-210.
- Pruchno, R. A.(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experience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 209-221.
- Sawyer, R. & Dubowitz, H.(1994).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in kinship care. *Child Abuse and Neglect*, 18, 587-597.
- Sanders, M. R. & Woolley, M. L.(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Silverstain, N. M. & Vehvilainen, L.(1999). Grandparents and schools: Issues and potential challenges. In C. B. Cox(Ed.), *To grandmother's house we go and stay: Perspectives on custodial grandparents*(pp. 268-282). New York: Springer.
- Szinovacz, M. E. De Viney, S. & Atkinson, M. P.(1999). Effects of surrogate parenting on grandparents' well-being. *Journal of Gerontology*, 54(6), 376-388.
-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